202132505 김동우

나는 실제로 Chat gpt를 굉장히 자주 쓴다. 대부분의 과제는 AI없으면 못 할 정도로 많이 쓴다.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일반적으로 과제만 쓰는 거 이외에 AI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위해 더 많은 곳에서 써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.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AI를 쓰고, 얼마나 빠르고 잘 쓰는지에 대한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.

AI를 많이 써 봐야 하는 건 다른 이유도 있다. 영상에서 나왔듯이 AI는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서 100%정확한 것이 아니다. 또한 정확한 정보라 그래서 실제로 나한테 중요하고 유용한 정보인지는 오직 나만이 판단할 수 있다. 이러한 것들을 잘 판단하려면 결국 경험이 중요하고 많이, 또 다양한 AI들을 사용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. 영상에서 실제 코딩해서 나만의 앱을 만들어 봐라 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일 것 같다. 실제로 내가 앱을 만들면 엄청 힘들 것이고 많이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,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.

내가 영상에서 본 AI중 가장 관심이 생긴 건 ‘나노 바나나’다. 찾아보니까 AI이미지 생성/편집기다. 실제 사진과 같이 예쁜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도 이미지로 만들 수 있다. 이러한 프로그램이 옛날에는 별로 없고 가격도 비쌌지만, 최근에는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가격도 무료가 많아졌고 성능도 좋아져서 나 같은 일반인도 쉽게 쓸 수 있게 되었다.

앞으로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Chat gpt 뿐만 아니라 다른 AI랑 동시에 쓰면서 교차검증을 하면 더 정확히 쓸 수 있을 것이다. 그리고 나노 바나나, 편집 AI, 노래 만드는 AI인 suno ai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내 작업물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내 포트폴리오로 쓰면 미래에 취업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.